



# 사순절 묵상집 2014

##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2014년도 사순절 묵상집을 위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권두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19)

저의 사무실에는 한 주먹 흙이 담긴 병이 있습니다. 7년전 ECC 착공식 때 담아 놓은 흙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정신이 없어서 흙을 담아 보관할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노회 총무님이 착공 식에 왔다가 병에 담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 3년 후 준공식 때 총무님은 그 동안 당신 사무실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흙은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온 셈입니다. 벌써 준공한 지도 4년이 되어 옵니다. 그러니 저는 4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온 그 흙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흙은 저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아마 흙은 자기 고향에 돌아 온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압니다. 게다가 ECC라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울러 ECC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리라 상상해 봅니다.

이 흙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면 저의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흙을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도 병에 담긴 흙이 아닐까요?

사순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찌어다.”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곧 사순절은 각자가 병에 담긴 흙임을 새삼 깨닫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힐 때 흙은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물론 흙을 만드신 하나님은 두 말할 나위 없고요.

올해 우리가 피워야 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라는 병에 심겨진 씨앗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흙더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올 해도 수고해주신 홍보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

# 사순절의 기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3)

사랑하는 하나님  
절기로 지켜지는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요.

그 고통이 저희를 위한 것이기에  
사순절 매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 발자국 따라  
고독하고 슬픈 길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구유에 나실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기에  
매일 매 순간이 사순절의 삶이 되게 기도 드리웁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올 해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마음 안에 새겨져  
겸손의 마음, 온유한 태도, 선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아프리카의 굶주림, 우리 북한 어린이의 배고픔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굶주려 배고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풍족함이 이웃의 모자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영경 장로

.....

기도: 주님,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소서. 아멘.

# 세상 속의 신발 벗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5)

예수님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서 홀트려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귀하고 소중한 고난의 계절 사순 절기에 십자가 넘어 숨겨진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을 자복하고 용서받으며 새 소망을 갖는 묵상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름없고, 재력 없고, 권력 없는 민중들의 한 복판에 오셔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천대받으며 친구없이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과 연대하고 벗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법에서 참 평화와 자유어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며, 모든 세상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극한을 달리던 그 모든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난임을 생각하니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라 하면서도 참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죄인중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가 나를 못 건디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떠한 풍량이 갑자기 온다해도 변치 않으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의 두 눈을 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라. 내가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은 어디에 있느냐, 심어준 사랑은 어디에 숨겼느냐’ 고 묻고 계심을 듣습니다.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거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쉼 곳이 없어 이렇게 서럽구나’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미련한 나를 은혜로 덮으소서. 여태까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먹지 못했고 더러운 것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생각은 언제나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로막고 있는 벽이 너무 두꺼워 뚫어보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몸부림쳐 보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뚫을 수가 없음을 내가 깨닫기에 이제는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셔서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힘, 성령님의 영적 병기를 주시옵소서. 닥치는 대로 부서버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바라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물결에 병들어진 마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 질병보다 무섭고 죽음보다 두려운 사람과 사람과의 잔혹함으로 내 인생을 즐겼던 용서받지 못할 죄악,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성, 풍요 속에 살다보니 배고픈 사람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자신에게 멎든 자의 고통이 없으니 들어야 할 신음소리 못 듣는 청각장애자로 이 모든 죄악들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자비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새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일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더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대 집사

.....  
기도: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에게 명하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리,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로렘산 기슭 떨기밭 불꽃 속에서 나타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시간 나에게도 들려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 오역불면 吾亦不免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10)

오역불면吾亦不免. 나 역시 면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말이 고요.

아내에게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

왜 당신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건가요?’ 순간 내내는 벼락 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아내에게나 나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만 그리고 내게만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고난도 연단도 축복처럼 공평하게 주십니다.

이 겨울은 추위가 늦습니다. 덕분에 흩뿌리던 눈발이 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초겨울 회색 하늘은 해를 가렸고요. 내리는 비는 가랑비인데, 얇게 쌓였던 눈을 쉽게 녹여 줍니다. 비는 렉싱턴에만 뿌리지 않을 겁니다. 눈은 부르클라인에만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눈과 비는 온 세상에 골고루 뿌리고 내렸을 겁니다. 그나마 눈이 쌓이지 않았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곧 회색 구름 걷쳐질 것이고, 맑은 초겨울 해는 그윽한 햇빛을 차별 없이 온 세상에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젖은 땅을 말릴 테고요.

너와 난

우린 각자 화분에서 살아가지만

눈과 비를 그리고 햇빛을 함께 맞는다는 것

(‘자취일기’ 키비의 힙합, 광화문 글 판 중에서)

‘이겨내야 한다. 넌 이겨 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말씀입니다.

김화옥 집사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고통을 감사히 여기도록 하옵소서. 축복을 감사한 것처럼,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기꺼히 받도록 허락 하옵소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옵소서. 그가 받은 고난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 Onething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일상적인 편안한 가족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Onething conference를 가고 싶어했다.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것 자체와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내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가족은 2013 연말을 Onething conference에 가기로 하였다.

믿음이 약한 나의 마음 한편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또한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하여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

3만 5천 여명이 모인 convention center에는 뜨겁고도 열정적인 찬양들, 목사님들의 설교, 선교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내 두 아들과 아내를 포함한 수 많은 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머뭇거림을 비웃고 질타하며 나의 마음을 열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은 여기 이 땅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하여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의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크게 베풀고 섬기는 사랑으로 커져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시작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ven though the enemy says you are not a leader, you are still a leader. Even though the enemy says you cannot do it, you can do it with Jesus” 라고 우리 두 아들에게 기도해 주신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10,000 reasons 들이 모두 ‘Onething’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방경남 집사



기도;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1887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윌리엄 보덴(William Whiting Borden)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과 낙농 제조회사를 경영하는 대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일주 여행을 선물합니다. 그는 일 년간 혼자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역에 내 한평생을 바치리라.” 그런 뒤 그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모두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와 예일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증여한 막대한 재산으로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제와 성경공부와 기도 생활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대학 첫 학기에 시작한 아침기도와 성경공부 모임은 그가 졸업할 때는 전체 1300명의 학생 중 1000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좋은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는 좋은 일자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프린스턴 신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 곧 중국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친지와 친구들은 극구 그를 말렸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성경 표지 안쪽에 또 한 마디의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연히 선교사역에 필요한 아랍어 교육을 받기 위해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불행스럽게도 사역을 시작한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 뇌막염(meningitis)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한 달 만인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성경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 마디를 더 남깁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윌리엄은 모든 것을 바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서 후퇴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정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짧은 일생을 살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illiam Whiting Borden (1887-1913), A man in Christ, ...;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윌리엄 보덴 (1887-1913), 그리스도 안에 사람, ~(중략),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Ref.

1.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Whiting\\_Borden](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Whiting_Borden)

2. <http://home.snu.edu/~HCULBERT/regret.htm>

(지훈 집사 제공)



# 경건이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5)

아주 오래 전에 “장미의 이름으로”란 영화를 본적이 있다. 당대의 부패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황청과 청빈주의를 강조하는 프란체스코 수사회와의 대립이 모티브가 된 추리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허끝과 손가락 끝만 검은색으로 변색된 수사들의 시신을 검증하며 추리하는 과정에서 그 수도원 안은 음모, 타락, 부패, 폭력, 독선의 악취가 풍기는 당대 사회를 그대로 축소하여 옮겨온 듯한 소우주였다.

무엇보다 반전인 것은 살해의 원인이 경건하기로 이름난 노수사가 경건한 수도원이란 명성이 사라질까봐 저지른 살인이었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비밀 도서관이 있고, 그곳에는 읽으면 안 되는 금서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었다. 수사들이 이 책을 읽고 웃음을 터트리면 경건이 무너진다 생각한 노수사는 책장마다 독을 묻혀놓았는데 몰래 금서를 읽은 수사들이 죽은 것이다. 경건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라 참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게 한 영화였다. 이 사순절에 왜 이 영화가 생각났을까? 본질에서 벗어난 진리란 엄청난 결과를 파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사순절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에만 초점 맞추는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묵상하며 행위로 고통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며 이 영화가 떠올랐다. 사순절은 고통이 초점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의 고통의 무게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일 것이다. 그 무게를 스스로 저서 절대적 절망에 이르러야 볼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처럼 숨막히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OY’란 단어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란 뜻이 있다고 한다.

이 기간 또한 기쁨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보내며 진정한 경건함이란 행위를 절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전신에 권사

.....

기도: 세속의 법 아래 있는 우리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피로 사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부자의 파라독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21)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속에 돈이 없으면 나라도 구제금융을 받고 개인은 실직과 해고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한국인들은, 그 덕분에 그 동안 돈, 돈 하는 것이 어쩐지 친박하다 싶어 꼭 놀러 참된 사람들도 더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잘해서 뭐 하니. 돈만 많이 벌면 돼”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세상이 된 것. 하지만 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보다 쉽다고 하셨을까요.

심리학 용어에 ‘점화효과(priming effect)’ 라는 게 있습니다. ‘먹다’ 라는 단어를 접하면 ‘밥’ 을 연달아 떠올리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멋진 장동건이나 이민호를 보다, 내 옆에 아저씨를 보면 웬 꼴뚜기가 앉아 있는 듯... ㅋㅋㅋ, 이것도 점화 효과의 한 예이지요. 이러한 마음의 연상작용은 그냥 무의식적이고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상 메커니즘에 의한 ‘점화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돈과 관련된 네 개의 단어(high, a salary, desk, paying)를 제시하고 문장을 만들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요.

일단 다른 주제를 받은 피험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두 배 가까운 시간을 쓰며 열중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훨씬 더 이기적인 태도를 취했죠(도와주는 시늉만 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돈에 대한 생각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줄이고 개인주의를 점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두기 쉽다는 또 다른 실증적 실험인 거죠. 헐~ 정말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건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후전 6:10)

지훈 집사

.....

기도 : 주위를 살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 친척, 친구, 동료, 이웃,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Lenten Meditation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Habakkuk 3:17-18)

사순절은 저희 모두가 잘 알 듯이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저희를 위하신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이 기간이 되면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금식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무언가 하나를 절제하고 그 절제하는 동안 예수님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저녁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학교에서 수 많은 시험들과 학교 일들 때문에, 금식이라는 단어는 제 머리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로 저녁을 먹게 되었고, 제 스스로와 타협을 해서 오후 5시 이전에만 먹으면 저녁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낸 lent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은 커녕 매일 하던 기도와 매일 읽던 성경을 조금씩 멀리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미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서야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항상 “나” 라는 존재가 제 모든 행동 뒤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내가 금식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저희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서 특별한 행동을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믿음을 갖고 따라와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

이제 시니어로서, 고등학교 4년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lent 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4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불만 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작년 lent 때와 같이 제가 자꾸 무언가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올해부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작은 나에 대한 삶이 아닌, 그 40일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면서 저희와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방채원 교우(중고등부)

.....

기도: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제가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고통과 비교할 수 없기에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 삭개오의 구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9-10)

삭개오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예리고 성의 세관장으로 어릴 적부터 땅딸막한 외모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어울리지 못하자 세관에서 일하며 모든 나쁜 짓을 하며 억척같이 돈을 벌어들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정부에 일정 금액을 선납한 후 국민들로부터 그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므로 국민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 및 매국노 그리고 창기처럼 죄인으로 취급 받아 모든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앞에서는 돈 때문에 굽신거릴 지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그들과 진심으로 사귀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여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그는 무엇이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의 영혼은 마치 우주에 떠도는 유성처럼 공허함으로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니고데모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기능을 합친 막강한 기구로 그 회원은 당대의 모든 권력과 지식 그리고 명성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보였던 그 역시 일상의 신앙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속으로는 심각한 영적 공허를 느끼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 그와 대화 하는 중 그토록 찾았던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와의 사귀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죄인 됨을 부끄러워하며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뿔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물기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축 쳐졌던 영혼은 기뻐 춤추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의 집안 모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 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참 구원을 주십니다.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품으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으로 자기를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비움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의 마음 문을 먼저 열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권복태 장로



기도: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 회개의 기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5-16)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10년전 벌써 컷 희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이제 6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옵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면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신 주님,  
또 앞으로도 저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실 주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제 이웃을 외면하고, 참아야 할 순간에 분노하고, 봉사과 나눔에 인색하였고, 이해하기 보다는 험담을 즐겼으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의 샘에 담그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은총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계숙 권사



기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 천국을 보여준 형제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 44)

내가 주님을 만났던 대학교 3학년 여름은, 새하늘, 새땅을 맛보며 뚝뚝 떠서 살았다. 그해 가을 어느날 CCC 형제들 몇이 청계천 빈민촌의 한 집을 찾아갔다. 허리를 굽혀 부엌에 들자마자 반쪽짜리 방문을 열고 어슴프레한 방에 들어가 다리를 최대한 구부리고 앉으면서 우리는 “ 잘 오셨읍니다” 라는 인사말을 들었다. 얼굴이 하이얀, 빨간 세타를 입은, 간신히 성경한권 올려놓은 작은 상을 앞에 놓고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 분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척추 결핵을 앓기 시작,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고, 담이 높은 집에서 사는 부자들 과 가난한자들을 무시하는 권세자들과 학식이 높은자들을 증오하며 살았다

이 분은 한 달 전쯤에 그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미친듯이 더듬더듬 성경을 읽기시작, 3번이나 통독을 했다. 부자들, 병자들 예수님을 믿지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 전쟁중인 베트남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부끄럽기도 하고 병든 그 여자분이 부럽기까지 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위하여 부지런히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간절히 당돌하게(?)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충고,부탁을 했다. 그뒤 나도 베트남을 위해 몇번 기도했다. 그 분의 기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지만...그래도.

그 후 몇 주일이 지나고, 주일에베 후에 그분의 장례식을 위해 청계천을 또 찾아갔다. 그 오후막 집, 부엌에 가득히 부뚜막까지 짝 차게, 빨강색의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진 보자기를 씌운 관이 올려 있었다. 얼마나 밝고 깨끗하던지 신비한 빛이 청계천을 온통 비치는것 같았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들은 몸, 조그만 가슴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이분이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사랑스런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며 잘 살다가 오라고 속삭이는것 같았다.

\*\*\*\*\*

우리가 Illinois 에서 Pennsylvania주로 이사오던 해에 아주 멋있고 잘 생기신 인격도 훌륭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이 분이 앓고 있던 간염은 간염으로 악화되어 몇달 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이분은 상식적으로만 4대 성인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왔다(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병이 깊어지면서 이 분은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배우며, 몸과 영혼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이안 안개가 자욱하게 Medical Center 를 덮어주던 조용한 봄날 이른 아침에 이 분은 병실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목사님의 세례문답에”\_\_\_\_\_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김선생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분은 “네” 라고 깊고 길게 대답하셨다. 이 분은 평생에 이 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살아온것처럼, 마지막 결승에 마침내 도착한 자처럼 깊은 안도와 평안과 만족이 가득한 모습이셨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님이 그를 반갑게 안아주고 계셨다.

얼마후에 이 분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한다고 간절히 부탁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때 의과대학을 다니던 큰 아드님은 몇년동안 아픔과 갈등과 혼동 속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 이 분은 Cincinnati 에서, 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과 함께 도시 빈민들을 위하여 의료활동과 복음전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앞에 가신 아버지의 뭇까지) 50대 중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3대째 이 분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또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보고 배운대로 믿음의 길을, -아직도 젊어 아프고 힘들때가 얼마나 많으랴 - 따르고 있다.

\*\*\*\*\*

이 분들 외에도 나는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며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뿐이라면 삶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 허무할뿐이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천국을 목적하고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은 삶의 의미와 가치로 충만하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내가 아는 형제들이 무수히 많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후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멋진 삶이 될까. 이 소원은 늘 내 마음속 깊은곳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다.

윤만강 권사

.....

기도: 우리 주위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 너희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25)

Leonard Cohen이라는 분이 성자(Saint)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자는 혼동된 세상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삶을 사는 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생의 풍랑 위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개 우리는 ‘성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화도 안내고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등등... 특히 풍랑이 오면 풍랑을 잠잠케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홀로 바다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이때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힘들게 배를 저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후 배에 오르니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풍랑을 멈추게도 하시고 풍랑 위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걷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의 소유자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잠꾸러기의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혼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위를 걸어가십니다. 곧 장난꾸러기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물구덩이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비싼 신발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물구덩이에서 물을 튀긴 후 지나갑니다. 엄마는 속상해 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사도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바울은 풍랑 위를 밸런스를 잡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예수님을 닮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영화 Titanic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Titanic이 침몰한 이유도 과학과 상식을 어겼기 때문이죠. Titanic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명보트도 규정에 맞게 준비하지 않았습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Titanic은 침몰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목사님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모습 너무나 고귀합니다. 정말로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성자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풍랑 위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을 정하고 이 기간 참회와 절제/금식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죄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죄의 폭풍 위에서 춤추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잠꾸러기 주님, 장난꾸러기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춤을 추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죄 때문에, 때로는 조상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곧 죄로 인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풍랑을 발판 삼아 세상을 뛰어 넘는 자들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장난꾸러기로 삼으십니다. 사순절 기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함과 더불어 잠꾸러기, 장난꾸러기가 되십시오.

만세 반석 열리니'의 찬송가 가사의 저자 Toplady가 잠시 후 함께 부를 '고요한 바다'를 지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Toplady가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풍랑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인생을 고요한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풍랑이 몰아 칠 때면 이 풍랑을 더 빨리 가기 위한 최선의 선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는 장난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안심하라.”

이영길 담임 목사  
<2013년 2월 24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오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 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 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 이라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 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 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 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 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source: <http://blog.daum.net/ys9021/1226>

.....

기도: 삶이 힘들어 낙심되고 좌절할 때 주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17)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예수 오셨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복음성가는 나의 마음을 몽클하게 만든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로마서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것을 절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 길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시므로 온 세상 인간들을 구하는 길인 것이었다.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속죄의 형벌이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명칭상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최상의 비참하고 잔인한 형벌중의 형벌인 것을 눈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요즈음 한국 영화 “변호인”이 뜬다고 해서 별로 영화 볼 시간이 없는 형편이지만 단단히 각오하고 멀리 있는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드디어 관람했다. 남을 변호한다는 그 타이틀에 마음이 끌려서 보았는데 역시 수준급의 영화였다. 그러나 그 영화 장면 중에 청소년을 고문 하는 장면이 끔찍해서 얼굴을 한참 가렸다. 마구 때려서 피 투성이가 된 그 어린 청년! 그런데 이 정도 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던 잔인 무도한 십자가 형벌인 것을 성경은 말해 주지 않는다. 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 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니 보통 정도의 고문을 초월한 고문이기에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흔히 사용되는 우리들의 말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악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지하여 구세주를 처형 했으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3)”

즉 인류를 행한 사랑의 표출인 것이다. 동시에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 표출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8년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빌라도 법정을 지나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통곡의 길’을 지나며 눈물을 흘렸던 일이 지금도 생각한다. 보잘것 없는 이 딸을 구하기 위하여 가신 고난의 발자국들!

김 Kelly 권사

기도: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 합니다. 아멘.

##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 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0:1-5)

얼떨결에 맡은 집사회장 직분을 ‘일 년만 고생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감당하던 제게 2012년 11월 집사회 총회는 뜻밖에 무거운 짐을 제 어깨에 던져주었습니다. 한해만 섬기는 직분으로 알았던 집사회장을 1년 더, 그것도 교회 창립 60주년인 2013년에 2년째 감당하라는 선뜻 이해하기도 용납하기 힘든 결과 앞에서 확답을 미룬 채 그냥 교회를 빠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2년을 하라는 거야!’ 라는 분이 치솟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혀서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집사람, 함께 집사회를 섬겼던 집사님들의 염려 섞인 전화는 눈에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헌데 다음날 펼쳐든 매일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호령이었습니다. 그날 묵상은 ‘욥기’의 거의 마지막 장인 40장.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욥의 반박에, 실망에, 하소연에, 분통터짐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 할찌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 할찌니라.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찌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날날이 낮추며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들찌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기 40장 말씀 중에서)

제 투덜거림과 온갖 저울질을 이 한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잠재우셨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성경을 펼치자마자 응답을 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 마음에 획을 그어주시며 제게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고, 타당이고 부당이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맹이 같은 나를 쓰려고 하시는데 더 이상 의 투덜투덜거림과 온갖 평계와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대장부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스스로가 이상할 만큼, 제 마음을 잠잠하게 움직여주신 하나님…

지난 1년의 크고 작은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도와줄지, 또 행사가 숫자적으로 성공을 거둘지 등등은 한번도 염려해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제 성격이나 성품으로 일을 감당하였다면 일년 내내 좌충우돌하고 여기저기서 언성 높이는 날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일손을 보내주

셨고, 다급한 재정문제도 해결해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일 처리하는 방식과는 180도 다르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며, 나와 함께 일하는 교우들도 나와 일하는 게 아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호령에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허리를 질끈 묶고 묵묵히 보냈던 한해. 해서 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일손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제가 창립 60주년 행사와 전교인 수양회를 집사님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시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오히려 제가 일을 잘 한 것처럼 칭찬받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투덜이 소년 같은 제가 ‘대장부’ 처럼 의젓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처음 받을 때는 부담스러웠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신앙은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일은 능력 있고 재주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미루었던 제 경솔함과 교만으로 여기저기 뽀족뽀족한 못생긴 돌맹이였던 저를 새삼 보게 됩니다. 그 모서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리저리 굴러서 조금 보기 좋은 돌맹이로 만들어주셨던 은혜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김동규 집사

.....

기도: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에 늘 기쁨으로 순종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사랑 빛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최근에 너무나 우연하게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KCC 햇불집회에서 나눈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비디오의 내용은 북한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크로싱’ 이야기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선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는 내내 제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솟구치고, 슬프고, 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 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이름으로 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정말이지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저에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노윤경 집사

.....

기도: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더욱 널리 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 29-30)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후부터,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왔고 또 형편대로 잘 섬기려고 애써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전보다 더 못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게 이젠 완전히 내려 놓으라고 명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님들을 내 손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의아했다. 하지만 의아하게 느끼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부모님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음을 깨닫고 당황스러웠다. 지난 수년간 나는 늘 그분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려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되물었다. 결국 내가 그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보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만 할 뿐... 내려놓으려는 순간, 많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보니, 그 동안은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을 다짐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수 밖에 없다. 난 늘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며칠 전 연락이 왔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돌보심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사랑”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부모님을 당신의 자녀로서 징계도 하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막으려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 뿐 아니라 이삭 또한 그 상황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곽서영 집사

.....

기도: 이제 순종하려 합니다. 제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제가 내려놓은 제 멍에를 위해 주님께서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아멘.

## 두려움과 믿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저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서 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걱정보다도 장미 빛  
미래를 향해 한걸음 다가섰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5년 후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  
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유학을 9년 동안 했고, 박  
사 학위는 처음 박사 과정을 시작했던 학교가 아닌 미대륙 반대편에 위치한 이곳 보스  
톤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은 한국을 떠나올 때 계획했던 바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전개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는 나약했고 담대하지 못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런 상황 속  
에서도 쉽사리 주님께 손을 내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믿음이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 하고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동동 떠 다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빠져 나간 자리를 두려움  
이 채웁니다.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었던 아내와 먼 곳에서 기도도 후원해 주신 부모님  
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 가을부터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처  
음 도착했던 그 때보다 상황은 더욱 난감합니다. 중국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중국  
어도 거의 할 줄 모릅니다. 이번 구직 과정 중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  
다. 이제 낯선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  
들리라.” (이사야 41:10)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보스톤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주님  
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성연 집사

.....  
기도: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다시 쌓는 기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12)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 온 후의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 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잘 정돈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 갈 때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를 먼저 쌓아야겠죠. 그러나 이런 곳에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을 줄 압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갑자기 음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음식과 기초를 쌓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음식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삼았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왜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초를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음식과 함께 모든 절기와 예식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예배와 함께 모든 집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집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잘 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이나 대강절을 잘 지키기 시작한 것과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음식에 대해서 별로 좋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여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된 곳에서 절기를 잘 지키므로 새롭게 기초를 다질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음식과 절기 지키를 역겨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들은 할 일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음식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린 자와 나그네와 혈벗은 자, 그리고 골육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영길 목사  
< 2013년 3월 3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 중에서 >

#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우리 작은아이가 아직 어릴 때입니다. 좁은 집안에서 술래잡기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제 엄마 옆에 담요를 뒤집어 쓰곤 했지요. ‘엄마,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고 찾는 흥내를 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선우가 어디 숨었을까’. 한참을 찾는 시늉을 할 즈음, 제풀에 아이가 뻔뻔히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내가 여기 있지’ 승리감에 얼굴은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 얼굴엔 땀이 흥건히 배여 있고요. 숨어있느라 꽤 힘들었을 겁니다. 숨은 걸 들키면 어쩌나 걱정했을 테니까요. 담요 속은 덥고, 쉼처는 앉았을 겁니다.

현데, 내가 계속 탄성을 부릅니다. 슬며시 아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선우 어디에 이렇게 꼭꼭 숨었나.’ 바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짐짓 눈길도 주지 않고요. 아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양 행동하는 겁니다. 아이는 곧 울상이 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잖아.’ 거의 울먹이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꿈쩍도 않고 계속 탄성을 부릅니다. 정말 아빠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제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내 눈앞으로 얼굴을 바짝 붙이고 눈물 먹은 눈으로 나를 봅니다. 그제야, 내가 ‘우리 선우가 여기 있었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꼭 껴안아 줍니다. 아이가 이제야 환하게 웃습니다. 안도감이고 행복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찾다가 아이가 아버지를 찾은 거지요. 아이는 그러면서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나 싶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애가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나. 오줌 지리겠다.’

김화옥 집사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고통을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 능력은 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54:1)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저와 잘 맞아서 친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저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나 이해방식, 가치관이 달라서 그 사람들의 언행을 제가 이해하거나 좋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는 거리도 생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게 되고 무관심해지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 및 관계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제가 깨우쳤던 것은 제가 바로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충고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적으로도 크게 잘못 한적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나쁜 것을 하면서 살아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자격이 있는가?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 할려고 노력 하는 것 보다는 제가 가진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도 크나큰 죄인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의 자격으로 제가 누굴 판단하고 비난 할 수 있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로지 그 분 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연약한 죄인으로서 겸손함 보다는 다른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했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저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저하고는 많은 것이 다른 사람, 저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만이 제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자 죄인인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힘이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 온다는 것을 고백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 할 수 있기를, 항상 연약한 저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순호교우(청년 2부)

기도: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에 늘 기쁨으로 순종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나의 미국고향, 보스톤한인교회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어 한국교회다!"

66번 버스를 타고 '미림' 한인 마트로 향하던 중, 무심코 창문너머 햇살 사이로 보이는 '보스톤한인교회' 라는 낯익은 낫을 본 순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십 여 년 전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었을 그 당시, 우연히 한국어로 쓰여져 있던 교회팸말은 진심으로 감동적이었다. 그 때부터 이어진 우리 교회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진하게 이어질 줄이야. 차 없이 뚜벅이었던 나는, 그 당시 걸어서 25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 차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았고, 우연히 한국교회를 집 가까이에서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주일날이 되어, 어떤 망설임도 없이 교회에 갔다. 롯데리아 햄버거를 때가 되면 멋~지게 풀 줄 아시는 중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대학생이 되면 해보고 싶은 '나의 로망리스트 1호- 주일학교 교사' 를 꼭 해보리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 물끄러미 소 예배실 문을 열고 맨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나는 그 날부터 그렇게 신앙생활과 유학 생활을 보스톤 한인교회와 함께 시작하였다.

매주 주일, 1부예배를 드리고 2부 아이들 예배 때 찬양인도와 율동을 하고 나면, 예쁘게 입고 왔던 옷과 얼굴은 땀 범벅이 되고 아이들과의 주일학교 수업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 걸어서 집에 오면 너 다운이 되어버렸기에, 미국에 갓 온 대학생인 내가 주일저녁 공부에 집중하는 건 참 쉽지 않았다. 그 당시 난 하나님께 당당한 약속을 하나 했었다. "주일날은 후회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게요. 하지만 학업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은 책임 지셔야 해요!"

사실, 누구나 처음 타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있듯이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 학기 때, college writing 수업에서 내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점수라고 생각한 D를 받기도 하고, 그나마 자신 있게 느껴졌었던 Music of Asia (영어를 덜 써도 될 것 같은 Music이라는 단어와 Asia라는 단어의 조합이기에) 라는 교향 과목을 듣고 C를 받아서 학교화단에 쪼 그리고 앉아서 몇 번 소리 없이 흐느끼기도 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발표에 익숙치 않았던 나는 전공인 경영학 수업들을 들으면서 무수히 깨지고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학생활 막바지 학기 때, 뻑뻑하던 전공수업들과 진로에 대한 많은 생각들로 인해, 주일날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까지 참석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다. 마지막 한 학기는 주일예배만 드리기로 전도사님께 말씀 드리고 결정을 했었는데... 결정 후, 몇 주 동안 예배만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였다. 주일날, 1부예배만 드리고 도서관에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항상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



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전공관련 중간성적이 나왔는데 성적도 그저 그랬다. 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마구 떠오르는 게 아닌가... “혜원아, 무엇이 걱정이니.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나만 믿고 따르라.” 그 이후, 나의 연약해진 믿음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밝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했다. 온전히 주일날은 주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을 다시 지키기로 하고 주일학교에도 복귀했다. 대신 주일날을 제외한 6일은 시간 낭비 없이 본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후, 거북이처럼 이해력도 느리고 영어도 힘들었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과 차석으로 대학생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학교에 대학원진학을 하고, 원하던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곳 보스턴에서 여러 방면으로 체험하였다.

그 중 한가지는 청년1부에 갓 들어갔을 때였다. 청년1부 부장 집사님들께서는 우리를 진심 배려해주시고 부모님처럼 챙겨주셨었다. 하루는 우리 모두를 집사님 댁에 초대해주셨고 푸짐한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 때를 아직 기억한다. “애들아~너희들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지? 너무나무 중요하단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님께 기도로 구하면 분명 응답을 주시는게 하나님이서. 우리 다같이 리스트를 써볼까?” 대학1년이었던 나는 그 말씀이 다소 생소하고 흥미롭기도 했고,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자세하게 리스트를 30번까지 쓰고 다같이 기도를 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이후 대학원시절 만난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은 내 리스트에 꼭 맞는 소중한 반쪽임에 틀림없다.

주님은 적어도 나에게 공짜가 없는 분이셨다. 항상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할 때에, 손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낮은 자의 마음을 허락해주셨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들은 언제 응답해 주실지 참 궁금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뉴욕에서 결혼과 대학원 졸업 이후, 하나님께서 이번엔 혼자가 아닌 둘을 또다시 보스턴이라는 곳으로 보내신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교회와의 재회도...보스턴한인교회는 나에게 제 2의 고향임을 확증시켜 주신 것 같다 - 미국생활을 같이 시작한 곳이며, 내 10대 마지막과 20대 생활 대부분을 함께 했으며 30대를 맞이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성장하게 해주고, 30대의 발판을 마련해 준 보스턴한인교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혜원 집사(부부청년부)

.....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 (요한복음 21:17)

2014년 사순절은 맞아 짧지만 뜻 깊었던 저의 지난 10년을 뒤돌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마 16:16)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지 꼭 1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1-2) 라는 말씀을 주시며 보스턴에 보내주시고, 평생 동역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며, 나를 낳추어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부의 두 렷돈의 이야기와 같은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시험에 빠져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낮추게도 하였고, 가끔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라는 말씀을 통해 나의 악함이 죽어야 내 안에서 전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실도 알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웃고, 울었던 지난 10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두 번, 세 번 아니 백 번의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바라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지난 10년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은혜를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걸어 나가려 합니다.

차민호 집사(부부청년부)

.....  
기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Grandparent Day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로마서8:26)

Salt Lake City, Utah에 사는 딸 Jane이 매일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얼마 전에는 7살된 귀여운 손녀 Katie가 학교에서 몹시 Upset되어 울면서 왔다고 하여 나도 전화 대화를 함께 나눴다.

그날이 Grandparent Day인데 다른 애들은 다 Grandparent가 왔는데, 자기만 hug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Grandparent가 없었다고 한참 울더라는 거였다. Vancouver와 Boston에 각각 사는 조부모가 아무도 안 와서 몹시 섭섭했다는 얘기가. 그런데 옆에 있던 11살된 제 오빠 Matthew가 동생을 달래며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소리 내며 울지만, 나는 지금까지 속으로 울었어” 하며 동감 하더라. “앞으로는 꼭 가서 함께해주마” 약속을 하며 전화를 끊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충격으로 남는 것은 “나는 속으로 울었어” 하는 Matthew의 comment였다.

이젠 나이 많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던 Grandparent가 ‘단 하루만이라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작년 언젠가는 이웃에 사는 우리교인의 아들 ‘진유’ 학교에서 Grandparent Day에 한국에 계신 조부모님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남 대신 가줘도 좋다.

우리 모두의 Grandchildren이 “나도 Grandparent가 있어” 하며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줄 수만 있다면, Grandparent의 가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나는 속으로 울었어”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에 Grandparent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린다.

김문소 장로

.....

기도: 주님 Grandparent Day에 우리 손자녀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 용서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로새서 3:13-14)

저를 비롯한 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 받고 상처받는 일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상처주기를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상관없이 저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안좋은 감정들을 품게 됩니다. 설령 작은 일이라도...

저 또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남에게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간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가끔 망각한 채 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였던 제자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인들을 용서하며 희생하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외면 당하실 때에도,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단 한번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증오를 품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용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되돌아보며, 제 자신이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 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잊어버린 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용서와 당하신 고난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것이고, 제 감정만을 신경썼던 이기적인 마음인지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아 제가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남에게 상처를 주어왔을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또 제 자신이 용기내어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맞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중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용서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샘 교우 (중고등부)

.....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있어 저희가 남에게 상처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며, 저희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모두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남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2: 7)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바울의 뇌리에는 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울리곤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바울의 뇌리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곤 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쉽게 추리해 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은 사도행전에 세 차례 나옵니다. 물론 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 인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9:5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가 오늘 봉독한 것이고, 세번째는 26:15절로 로마로 이송되기 전 아그립마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바울이, 물론 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너무나 소중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사도행전의 중심 고백이 된 셈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세 차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얼마나 이 주님의 음성을 자신의 뇌리에 사무친 가운데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오랫동안 키운 후 책을 지었습니다. 책 제목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도 어쩌면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바울은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처럼 나타나실 리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꽃들이 활짝 피인 어느 주일날 성당으로 가면서 자폐증 환자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때 나이가 스무 살도 넘은 총각이었습니다.

“진한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나지.” 엄마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너’ 어? 누가 그래?” “엄마가.”

자폐증 환자는 엄마로부터 가장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받아오며 자랐던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남은 평생 따라 다닙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 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말씀하신다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곤 하노라면 사도바울처럼은 못 되더라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루 하루 사도바울을 닮은 자들이 되어 갈 줄 압니다.

이영길 목사

<2013년 3월 1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누가복음 6:35)

“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누가복음 6:35)

지난해 성탄절 전후에 TV프로를 살펴보다가 “Love Stronger than Death”란 영어 제목을 보았다. 그저 칠없는 애정 드라마 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다. 성탄절 후에 TV Channel을 돌리다가 이 제목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광복 후,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일제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방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려 신학과 (고신파)가 등장한다. 뒤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6.25 사변 직후에는 강도사였던 안용준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중학교 때에 읽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이 책은 기록하고 있다. 60여년전에 읽었던 터라 손 목사님이 아들 동인리와 동신이를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과 손 목사님도 순교하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 나환자(한센씨병)를 위한 목회를 하시면서 나환자의 마을 이름과 자기 이름을 나란히 편지에 ‘에양원 손양원’이라고 쓰기를 좋아하셨다고 했다.

앞에 말한 TV프로는 성탄절 특집으로 KBS가 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작년에 83세)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안재선]을 양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 딸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은 나의 오빠도 되는데 나의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찌 오빠라고 하겠습니까?’ 손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다. ‘성경에는 용서하라 했다. 용서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다. 양자로 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죽은 두 아들의 유품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 목사님은 아들의 교복을 부여잡고 온 몸을 떨면서 오열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님도 목사이면서 하나의 인간임을 느꼈다고 그 따님은 말한다.

나는 나의 가까운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를 언제나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면 나만 이해해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한국의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도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받아 주소서’

김형범 장로

.....

기도: 내 이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간단한 이야기로 여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은혜 받은 지 10년,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은혜는 변치 않는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10년전에 은혜를 받고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 일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9시간 찬양을 들으며 감사는 수십 번씩 하며 사니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또 반대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무엇이 두렵고 못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10년동안 기적도 여러 번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가지만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모게지 채용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비싸 채용자를 신청하였지만 3번이나 은행으로부터 거절 되었습니다. 4번째 다른 은행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큰 기대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마찬가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두 번째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사러온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야 하니 메인 행 기차비 60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물론 매상은 20불짜리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그 손님에게 12시나 넘어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극히 적은 자로 오신 예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막내아들이 생일 때 준 비상금을 내어놓으라고 하여 보태어 60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줄 알았던 손님 아닌 손님은 CVS약국에 약 타러 가야 하니 라이드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떠하셨을까요? 어쨌든 난 가게에 사람이 없으니 라이드를 주는 대신 지폐는 이미 다 주었고 1불짜리 동전을 다 끌어 모아 10불을 주어서 택시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게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은행대로라면 또 거절 되었겠지만 난 출근하여 아내에게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통과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당신은 은행을 몰라서 그렇지 통과될 것 같으면 벌써 다른 은행들도 해줬겠지요...’

그 말을 하고 정확히 30분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허가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의심하던 자신에게 꼬리 내리는 모습...그리하여 채용자로 인해 70불보다 2000배가 넘는 금액을 절약 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라는 것을...

이창호 집사

기도: 극히 적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며, 이 땅의 남은 삶도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까지.... 아멘

# 주만 바라볼찌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누가 내게 최고의 감사 제목을 묻는다면, 조부모님부터 사대(四代)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가정예배는 물론이요 명절에도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내 모태 신앙은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도 보스턴 한인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한 지 13년 째, 꼬박 꼬박 주일을 지키고, 성경공부와 QT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난하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회심했는가?’

‘나는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나?’

나는 여태껏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인 죄로부터 자유 함을 얻었다면, 나의 삶은 성경과 일치해야 하는데,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는 하면서도 매 순간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고, 찬양과 예배의 시간에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집안에서는 너그럽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등... ‘결국 내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인가?’, ‘내 모습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변화될 때 비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드러날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진리인 “주님만 바라보라” 는 실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지 한,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 벌써부터 좌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행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리란 믿음과 소망이 솟아납니다. 지금 내 마음 한켠에선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주만 바라볼찌라.

최현구 집사

.....

기도: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 예수님처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스라엘에서는 담장 안의 과일은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가지가 차고 넘쳐서 담장을 넘어서고, 그 곳에서 맺히는 열매는 거두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야곱의 축복을 간구하진 않았는지, 또 분에 넘치는 축복 속에서 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시고, 죽기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와 살을 쏟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흔적을 나와 누군가의 삶 속에 남기길 소망하며.....

윤주한 집사

.....

기도: 주님,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 없는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허락 하소서. 아멘

#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마음의 렌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잠언 4:23)

학업, 직업, 외모를 떠나, 우리 인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에, 작년 여름 우연히 ‘멈추면, 비로써 보이는 것들’ 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22)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23)

우리는 흔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한다 해도 이기심과 미움의 눈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 쉽게 잠식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마음의 렌즈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그 렌즈에 보고 싶은 색깔로 물을 들여버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그 마음의 렌즈로 무엇을 볼 지, 어디에 초점을 맞출 지, 그 렌즈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관리할 지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 자신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마음의 렌즈를 얼마나 깨끗이 닦고, 얼마나 잘 관리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맞추는 척하며, 때때로 제가 보고 싶은 곳으로 다시 초점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이대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에 너무나도 행복해요!’ 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했었는데...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와보니,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공부도 더 잘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께도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자꾸 자꾸 욕심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혹시 내가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쓸데 없는 근심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 하기도 하고, 한없이 부족한 제 능력을 탓하며,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때론 하



나눔을 원망하기도하며, 하나님을 슬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매일 매일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도 기쁘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신 것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 우리 마음의 렌즈가 진흙으로 더럽힐 지라도, 깨지고 상처가 날지라도, 치유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지치지 않게 우리에게 힘주시 하나님임을 믿으며, 예비하신 때가 되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렌즈의 방향과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의 물이 가득 넘치는 렌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깨끗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 때 더 나은 제가 되고, 더 나은 우리 청년 2부가 되고, 또 나아가 더 나은 우리 보스턴 한인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황수잔 교우(청년 2부)

.....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우리 집 오너는 예수님인데.....Right Brother?”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8)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던, 올해로 5살이 된 손녀 혜원이가 아무리 찾아도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 요청을 받은 엄마는 단번에 물건을 찾아 건네줍니다

물건을 건네받은 손녀가 하는 말

“엄마는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엄마의 대답,

“엄마가 우리 집 오너니까 다 알지요.”

이 말은 들은 손녀 혜원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두 살 위 오빠 윤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 오너는 예수님인데.....Right Brother?”

오빠가 대답합니다.

“Right !”

2년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는 손주의 고백내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했는데

2년후

“우리 집 오너는 예수님” 이라는 손녀의 고백내용으로 은혜 나누려 합니다.

5살 손주 손녀들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 한 분 만으로 만족” 하며

“내 삶의 오너이신 예수님” 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받으셨던

멀시, 천대, 모욕, 고통들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주미옥 집사

.....  
기도: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아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 질그릇이 빛날 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지 다섯째 주가 되었고 이제 그 묵상과 은혜의 깊이가 더욱 더 깊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걸음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 묵상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부터 이어져온 우리 기독교회의 전통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면서 함께 선포되는 말씀에 영혼이 벌써 깨어남을 느낍니다. 그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이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을 바탕으로 선포된 말씀인데, 저는 지난 재의 수요일에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어로 들으면 이 선포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정의할 때도 나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 역할이나 상황들 안에서 나를 정의하고 존재를 찾기에 익숙한데, 이와 같은 선포는 그런 사회적 정황과 관계를 모두 배제한 채 내리는 적나라한 나의 실체에 대한 폭로와 같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까마득히 있고 살던 나의 어두운 과거를 갑자기 들추어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나, 숨기고 싶은 실수들이 발각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낯 뜨거움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유한한 인생과 무능한 존재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선포입니다.

“인생이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순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수영 전도사  
<2013년 3월 17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사순절을 일주일 남겨 두고 2월 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주니어였던 작년 이맘때쯤은 방에 처박혀서 방학 끝나고 보아야 할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일년동안 나를 부담과 함께 대학 입학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보니 요즘은 학교 관련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해야 할텐데 하는 마음과 다 귀찮아 하는 마음이 얽혀 마구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런 즈음 교회 Youth Group 시니어 친구들과 선생님과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서로 인생에 대해 또,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을 많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것 저것 계획해서 실천해야지 하다가도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여 항상 숙제가 끝난 후 향하는 곳은 컴퓨터 앞. ‘아, 이젠 뭐할까’ 라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저 SNS와 게임,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들로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노력은 커녕 게임 등에서 헤어 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찾게되고, 초반에는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열심히 찾게 되지않아 포기하게 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distraction들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책도 덜 읽게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되는데, 이걸 고쳐 주실수 있는 분이 예수님 단 한 분 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멀리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주일에 제 생각을 조금씩 바뀌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제 친구들을 끄찍이 생각해주는 선생님 한 분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신 것입니다. 평소엔 항상 장난스럽게 말씀하셔서, 가볍게 듣고, ‘뭘 언젠간 내가 바뀔 날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좀더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하여, 일자리도 찾으려 열심히 노력하고, 게임이 아닌 악기 연습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소중한 성경 공부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저를 지켜 보시고 아무리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빠져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에 힘든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됩니다.

장인석 교우 (중고등부)

.....

기도: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시고 제가 갈 길을 교정해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 고난, 그 문턱 너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 24-25)

나무가 푸르르게 우거진 숲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내게 팔을 벌리셨다.  
그것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다.

구름 위의 파란 하늘과 저 멀리 바다위로 떠오르는 태양, 자연 속에 숨쉬는 생명체들과 바위 한 조각까지도 제 각각인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광대한 계획들을 새삼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곳에 계신데, 우리가 세상 안에 갇혀 허둥지둥 대느라 그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나의 마음에 사로잡힌 악함, 두려움, 걱정들은 그 아름다운 생명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통해 맑은 마음으로 정화된다.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을 마음 속에 품으면, 그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이 펼쳐짐을 느낀다.

나를, 나의 꿈을, 나의 마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라는 것을.

무엇이 나를 방해하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로서, 텅 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며, 기쁘거나 슬프거나 좌절할 때나 모두 그 계획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잠재되어있던 광채가 살아나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리라 믿는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사순절은 단지 좌절과 어두움이 아닌, 고통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우리 삶의 희망과 행복을 소망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김상영 교우

.....

기도: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좌절보다는 소망을,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 하나님의 선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3)**

“너도 자식 한번 낳아봐라” 내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종알거릴 때면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더군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진 것을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이는 내 뜻과는 달리 내가 주는 것을 반가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며 배우고 싶어하고, 정작 내가 주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는 달리 행동하는 아이, 부모로서의 조바심이 그 아이의 호기심과 자립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다 손에 쥐어주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편하게 가지도록 해주고 싶어서, 혹은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사춘기가 되니 더욱 자아를 찾아가는 내 아이. 이제는 남자가 되어가는 내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 아직도 내 품 밖의 세상은 그 아이에게 위험하게만 느껴져 자꾸만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을 잡아 당깁니다. 그런 나를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 나의 엄마께 그랬듯이 나의 보호에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는 화가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곤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남한테는 이런 심한 말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난 내 아들을 내 일부로 생각하고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들로 보며 그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면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완벽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난 그 아이에게 세상적인 완벽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따르는 아이가 잘 크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가 내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는 그 아이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 아이의 생각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내 뜻만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제가 곱씹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위임 받은 것 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아이를 내 뜻이 아니라 자녀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세상의 기준에 따른 이생의 자랑으로서 혹은 부모의 기대에 의한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의 기질과 달란트를 바로 보며 그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 줘야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것 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내 아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태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그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임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듣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아이가 실패 할 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번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아직 인간적인 욕심에, 내 아이는 이랬으면, 내 아이는 항상 뭘 하든지 실패하지 말고 잘 했으면.. 하는 욕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의 엄마로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엄마 중 제일 이 아이에게 적합하다 생각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 그 크신 뜻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주님의 뜻 하신 대로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화살이고 내가 그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활이라면 그 활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이제 두려워 하거나 조금해 하지 않습니다.

저를 제 아이의 엄마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물에 늘 은혜를 받사오며 주신 기쁨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소서.

김현주 집사

.....

기도: 주님 안에서 이 아이가 주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라고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 잠에서 깨어나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34)

나는 잘 준다. 언제 어디서건 등 붙이고 마음 먹고 눈 감으면 잠이 온다. 아주 오래 전에 Storrow Drive 에서 차가 많이 밀려 혼잡한 가운데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조는 통에 앞 차를 살짝 들이 받았고, 애들과 어디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운전하면 나 졸지 말라고 애들이 뒤에서 안마 해 주기도 하고, 또 북동 구역 소속으로 구역예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의례히 중간 쯤 되는 지점에 차를 세워 놓고 자고 가기도 했다. 이 조는 버릇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볼 때에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심지어 진규, 원규는 그런 아빠가 창피했던지 나랑 같이 예배 보는 것도 피할 정도였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해서 찬양대에 들어 갔는데, 그것도 한 두 달 지나니까 다시 졸기 시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래저래 시도 하던 중 이제는 나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내고 졸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보고 있는데, 찬양대에서 예배를 보다 보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 나도 저렇게 졸았었지” 하면서 다시는 졸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승리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던 터.

오늘, 나는 “나의 영혼은 얼마나 깨어 있나” 하고 자문해 본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겹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인 줄 아시고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 하시고는 돌아와서 보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아니 그 보다도 더 심하게 졸고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 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매번 하는 기도. 이제는 아주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기도를 하면서 진정 마음으로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타성에 젖어버린 나의 신앙을 채찍질 해 줄 믿음의 형제들의 조언에 짜증을 부리지 않을까? 혹은 누가 조언해 주면 길으로는 시인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 하쇼”라고 하지는 않을까? 언제 오실 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너무도 나태해져 버린 나의 신앙으로 천국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서지 않을까? 나는 십일조와 헌금을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곧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짐해 본다.

“타성에서 탈피 그리고 신앙심의 전환”

오늘부터 나는 이 천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항상 곁에 두면서 살리라.

.....**최정열 집사**.....

기도: 주 예수님. 오늘 제 마음에 오셔서 잠자고 있는 저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언제나 도 오실 주님 맞이 할 준비를 하게 해 주소서. 아멘

# 구약시대에 빛을 받은 여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하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도 빛입니다. 사랑은 빛과 같다고 합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양친을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는데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단정하여 바사 아하수르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국무대신 하만의 미움을 사 그의 잔악한 음모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전멸했을 때 에스더는 동족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두보라: 두보라는 모든 범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 사사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으나 다시 힘을 얻어, 철로 만든 전차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때에 두보라와 바락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사사기5: 2-31) 두보라의 시는 이스라엘 최고의 시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마온에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 하였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총명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마온에 이르렀을 때 사환을 보내어 그에게 전령을 통해 문안을 물었을 때 (삼상 25:10) 그는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내가 어찌 내 떡과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로써 인지 알지도 못 하는 자들에게 주느냐’ 고 거절하였습니다. 사환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어 아비가일은 곧 많은 음식을 마련하여 남편 몰래 대접하여 다윗의 노를 가라 앉혔다고 합니다. (삼상 25:36-42)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돌같이 굳어서 죽었고 후에 다윗왕의 아내가 되어 길루앗을 낳았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무자식 한 연고로, 같이 한 지방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고 세도를 부리는 브닌나로 인해 격동과 번민 속에서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0)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만대에 빛나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 1장).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베들레헴도 잘 산다고 하니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후에 룻은 보아즈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그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위에 서술한 여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빛을 받아서 반사했던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시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며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선경 권사



기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느 길로 가야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며 매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보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때면 실수를 바로 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야 함을 고백합니다.

‘진리’란 사전적 의미로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옳은 것 혹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말씀(로고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구속, 강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통제와 구속으로 벗어나 스스로 체득하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써 영의 거듭남을 입게 되어 아버지의 영 안에서 기쁘고 세상의 두려움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총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제일 좋은 길=the excellent way’은 다름 아닌 ‘사랑= the way of love’임을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뒷받침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첫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김미진 교우(청년 2부)

기도: 올 해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사도행전 7:59-60)

사실 이번 사순절 기간 소개해 드린 주님의 음성 모두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두려워말라. 안심하라.” 그런데 이 두 음성은 사도바울이 직접 들은 음성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 드리는 세 번째 음성은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스테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음성이 제일 처음 들은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 두 번째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사도바울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처음에는 이 음성을 듣고도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으로 생긴 마음의 균열 사이로 주님께서 나중에 점차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이었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지은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 아니 사울에게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잘 못된 것을 전파하니 모두 처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사람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돌 같이 굳어진 사울의 귀에 스테반의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었었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는….

그러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스테반의 고백은 사울의 굳어진 양심에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보던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의 급소에 큰 충격을 맞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급소를 쳤을 때 골리앗은 허물어져 내린 것처럼 골리앗 보다 더 완강해 보였던 사울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허물어져 간 것입니다. 허물어져가는 틈 사이로 주님은 끈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고백은 제 2, 제3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스테반의 고백은 것처럼 powerful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한국을 방문했던 코일 수녀 신학자가 인생을 북으로 비유하여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북이 차 있으면 두드려도 별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북은 소리를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합니다. 우리의 북도 속이 비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 닿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테반은 속이 빈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스테반이라는 빈 북을 통해 커지고 또 커져서 사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찢겨진 가슴 사이로 주님은 후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로 사순절마다 아니 고난주간 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곤 합니다. 주님의 가상철언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이 멈춰 버리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영길 목사  
<2013년 3월 24일 (고난,종려주일)> 설교문 중에서

# 순종의 마음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13)

사랑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 하시려 이 땅에 보내시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꽃이 만발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겨내신 우리 주를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 실만 하시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 하셨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조롱과 침 뱉음 그리고 채찍으로 다 찢겨진 남루한 옷을 걸치시고 추운 중동의 감옥에서 얼마나 떠셨을지, 한 방울의 물도 아쉬워하셨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은 또 어떠셨을지, 주신 복으로 따뜻한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죽일 죄인이 감히 우리 주의 고통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들을 모두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테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침 뱉는 그들을 궁핍함과 굶주림으로 모두 죽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너무도 크셨기에 그 모든 고초를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고난 받을 때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힘들어 하시며 우셨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혀가 당신의 아들을 정죄할 때, 죄인의 손이 당신의 아들을 내리칠 때 불쌍한 당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우셨을 하나님을 또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몸도 일으켜 세울 힘이 없던 당신의 아들이 집채만한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조금이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시려 많은 군중 가운데 그저 서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등을 밀어 아들을 돕게 하실 수 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절박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광근 집사

.....

기도: 이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회개와 절제 그리고 기도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비어 있는 마음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

“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2014년이 밝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한 해에는 저의 삶, 저의 가족, 우리 부청 식구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많은 변화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생명, 가족의 변화, 직장/학교에서의 변화, 이사, 건강 그리고 신앙...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최선의 노력과 힘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이란 그 어느 무엇보다 더 크고 힘듭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일부러 그런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는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막”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막 모래와 바람으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기만 한다면, 내가 직접 길을 낼 것이요, 가는 도중에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큰 나무 그늘도 줄 것이요, 목이 마르면 맑고 깊은 우물 또한 만들어 줄 것이며, 배가 고프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들도 따서 먹게 하리라.”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라...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오른손에 십자가를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15-21 말씀(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과 요한복음 14:6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을 다시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큰 고통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이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분과 함께 할 때, 그가 곧 길이 되실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1:1로 만나시고, 나는 여호와 한 분 만으로 족하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지영 교우(부부청년부)

.....

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사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을 오해하다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한복음 1:5)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 내 마음속 미움의 화살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향했습니다. 세상은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전쟁과 살인이 여전하고, 가난과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곧 의심하게 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 놓았어. 지나가다가 목마른 사람은 마시고 가라고. 목마름에 쓰러져가던 어떤 한 사람이 마침 그 우물을 발견해서 살아날 수 있었지. 우물물을 실컷 마시고 기운을 차린 그 사람은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지. 자 그러면,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난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결국 우물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니? 우물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사막에서 죽었다면 무고한 사람이 살해당하지 않았을테니까.. 결국 우물을 판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세상의 악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로 몰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는 선하신 하나님께 세상의 악을 설명하라 소리쳤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분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나는 알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종원/안원미 집사

.....  
기도: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나에게 올해의 사순절이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1서 3:14)

몇해 전 형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고 정성 들여 운영하시던 식당을 고생만 하시다 접으셨다. 경험 많으시고 요리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셨음에도 쫓딱 망하신 것이다. 권리금도 날리고 약간의 빚도 지셨다. 실로 가슴이 아팠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영업 시작하기 전 늘 예배를 먼저 드리셨다. 주일날 영업하는 것이 비성경적 이라고 판단하셔서 중단하기까지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번창하여 재물의 축복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식당을 접고 막막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시며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의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욕심이 먼저였으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물질을 경외하고 내 자신을 경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세웠던 특별한 계획들(하루 한끼 금식, 기호 식품 금지 등)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 자신의 면류관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헛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계획보다 나의 참모습을 깨닫고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기간이 되길 소망한다.

예전에 멜깁슨이 출연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 맞다면 현재 나의 여건은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받았음을 절실히 깨닫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미움, 갈등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죄 없으심에도 당하셨던 고초를 기억한다면 나의 혐의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 아닐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원걸 집사



기도: 올해도 사순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생애 최고의 특별한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예수를 만난 사람 - 한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42)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목상하다가 십자가의 한 강도에 시선이 멈췄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예수와 강도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다. 의사였던 누가는 직업상 여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접하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 같다. -- 두 강도가 있었다. 칼을 가지고 길가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거나, 아니면 밤에 집에 몰래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다가 두 강도는 잡혔고, 매를 맞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굉장한 이적기사를 행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끌고 다 언덕을 오르면서 보니, 사람들이 울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Him!)’ 하고 외치며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다. 한 강도는 헛갈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굉장한 이적 기사를 행할 줄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하게 잡혀가다니?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나? 그렇다면 사기꾼이었나?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슬피하며 저 사람을 따라가지?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면 서도 화내고 욕하는데, 왜 저 사람은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가득한 선함은 어떻게 된 것이지?

그리고 예수를 눈여겨 보았다. 가시관으로 피로 얼룩진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은 전혀 없었다. 별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용서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그러자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더 심해졌다.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니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때 옆에 있던 친구 강도가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 말을 듣자 이 강도는 피가 치솟았다. ‘야, 입닥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는데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친구의 무례함 때문에 더욱 죄송한 마음으로 이 강도는 예수께 말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감히 구원해 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때 예수는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은 강도는 지나간 세월의 잘못을 생각하며 울고, 예수의 말씀에 기뻐 또 울었다. 죽어 가는 예수의 옆에서, 그는 십자가 형벌의 엄청난 고통도 잊고 평온하게 서서히 죽어갔다.

이 강도를 생각하다가 나는 깨달았다, 이 강도는 바로 나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 받아 죽어야 했으나, 예수를 만나 이제 낙원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의 강도를 본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저주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로워하고 있는...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오... 불쌍한 사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강도같은 나를 위해 내 옆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원망과 저주가운데 죽어가는 친구 강도를 보며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낸다.

박신영 장로

기도: 주님께 생명을 빚졌으니, 생명을 빚진 자로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나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한심이 극에 달하여 마음이 고단할 때 마저도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헛된 자신감으로 인하여 나의 입술을 진정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나를 뺏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 악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항상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전하십니다. 시작과 끝 되시며 천하만물의 왕 되시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당신임에도 나를 위해 친히 인격적인 교제를 권하시는 주님은 겸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누어 주지 않고는 스스로가 감당치 못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천년 전에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신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훈련 받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더불어 교제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와 대화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게 하시옵고, 내가 나의 일터인 학교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곳곳에 전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이 너무나 바빠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갈 길이 너무나 평탄하여 나의 태어난 목적인 주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신 당신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힘이 닿는 곳까지 “예수님처럼”과 “예수님 만이” 를 외치며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울림을 대변하길 소원합니다.

김학주 교우(청년 1부)

.....

기도: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빛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게 하소서. 내가 매 순간마다 더욱 더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 부활의 사람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요한복음 21:14)

1955년 12월 1일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42살 난 여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비를 내고 차에 오르니 앞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로 가서 앉으세요.”

운전기사가 소리칩니다. 그래도 여인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 앉아 있는 백인들이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끝내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연락합니다.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감금합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인 차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여인의 운동에 가담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Rosa Parks입니다.

이 여인이 백인 좌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그 여인은 자신이 앉아야 할 곳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흑인으로서 많은 수치를 지고 살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엄청난 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신 그 여인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멋지게 요리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기가 앉아야 할 역사적인 장소에 앉은 것입니다. 이에 부활의 주님은 멋진 이야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데나 앉지 마십시오. 선별하여 앉으십시오. 우리들이 앉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곳에서 새롭게 벌여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며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영길 목사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 설교문 중에서>